

유비호 bihori@chollian.net 저는 1970년대에 태어난 세대죠. 일명 텔레비전 세대예요. 1970년대는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으로 텔레비전이 보급되던 시기인데, 다들 아는 사실이었지만, 그 당시 텔레비전은 집안의 가구와도 같았어요. 장롱 안에 텔레비전을 집어넣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 텔레비전은 특이하게도 앞면에 '드르륵' 거러머 열리는 이상한 짐지 형태의 문도 있었던 거 기억하죠? 1970년대만 해도 텔레비전은 흑백이었어요.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의 역할도 특이했던 것 같아요. 1980년대에 컬러 텔레비전이 개발되면서 어느 정도 대중화되었던 흑백 텔레비전을 밀어냈죠.

1980년대의 소위 '총 천연색 텔레비전'은 사실 콘트라스트·색조 보정기가 고장난, 즉 탈색된 모니터와도 같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텔레비전 모니터에선 일본의 애니메이션(아톰, 은하철도 999, 캔디 등)과 미국의 디즈니 만화 미키마우스, 딱따구리, 빨간 장화 신은 토끼 등이 제 각기 자신의 색깔로 어두운 방안의 백열등을 대신하였습니다.

지금 1980년대를 생각하면 그 당시 사회 역시도 색 바랜 컬러 텔레비전 영상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제 작업에도 어떤 미디어의 특성과 사회적 개인적 상황이 교차되어 드러납니다. 즉, 그 미디어의 형식적인 표현에 정치·사회적인 한국의 상황과 가족사와 같은 개인적 사건 또는 경험 등이 교차되어 드러나지요. 최근에 보여준 집단화된 이성, 그리고 속도에 자신의 몸을 싣고 달리는 사람들 등을 영상으로 표현한 작업들이 그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석한 작업들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미디어의 특성

유비호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다닌 후, 숙명여대 영상 미디어과 대학원을 수료했다. 새로운 미디어들의 형식적 특성을 바탕으로 스피디하고 획일적인 현대 사회의 일면을, 제자리에서 회선하거나 뛰는 루핑(looping) 이미지들을 통해 표현하는 작업을 최근 전시들에서 보여 주고 있다. 얼마전 〈보타 갤러리〉에서 〈강철 태양〉이라는 제목의 개인전을 가졌다.

오른쪽 위에서부터 유비호의 싱글 채널 비디오 작업들인 〈morph〉(강철 태양) (검은 질주)의 장면들. 현대 사회의 전체주의, 이성 중심주의가 얼마나 인간을 억압하고 왜곡시키는가를 '육체의 변형과 변이'를 통해 보여 준다.



은 인간의 각 신체 기관들을 개별적으로 발전시켜 왔어요. 이러한 미디어의 부분적인 발달은 편협된 결과를 가져오기에 사람들을 소외시킵니다. 미디어는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용자와 그렇지 못하고 소외되는 이들을 포용해야만 하죠. 새로운 미디어는 이러한 미디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3. 마지막 이행시, 작가: "작" - 작가들에게, "가" - 가장 중요한 것은 미디어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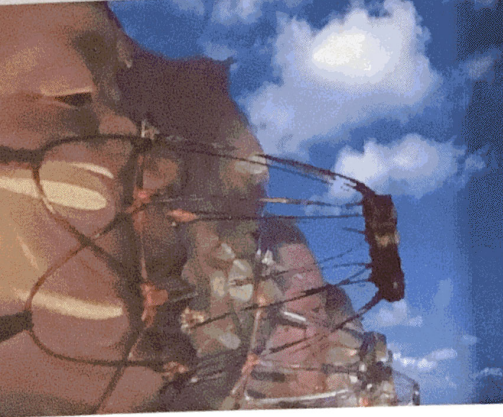
유비호 미디어 환경에 쉽게 집해 있기에 작가들 역시 자연히 미디어 작업을 선택합니다. 제 개인적인 출발 동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상상력을 확장해 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있지요. 저는 이미지를 찾고 그리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시각적 상상력을 넓혀 주는 부분에서 말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 자연이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동경하는 시골 감성을 지닌 작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는 저에게 낯선 측면이 많이 있고, 일단은 제가 아직 미디어에 대하여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호기심이 많이 느껴집니다.

강영민 작가에게는 사실 미디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콘텐츠입니다. 즉 작가의 사상이나 정서가 되겠지요. 저는 작가들이 이런 콘텐츠에 따라 구별되기보다는 미디어에 따라 구별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부작용은 매우 큰데, 그것은 마치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옷 모양만 보는 꼴이 됩니다. 작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무슨 옷을 입었냐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마치 대학 때 미팅 나가서, 마음에 드는 여학생으로부터, 단지 제가 옷을 좀 못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짜를 맞게 되는 억울함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캔버스와 종이에 그리던 그림들을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로 옮겨 온 이유는 마치 다음 미팅 때 의상에 신경 쓰고 나간 학생의 억울한 긴장감과도 같은 것입니다. 개인의 영역이 무시되고 힘의 논리에 의해 중요성이 부가되는 현대 한국 사회의 기묘한 불균형성이지의 작업 자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이리저리한 미디어를 사용하는 개인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는 대신 인터넷 서핑을 많이 하는데 인터넷에는 저같이 정리되지 않은 개인적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스미디어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나 재단되지 않은 전체 그림을 보는 즐거움이 있지요. 작가는 정치가나 언론인들과는 달리 좀더 사적이고 복잡한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심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는 삶에 대한 미묘함과 비밀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들의 이야기는 더 삶에 맞닿아 있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이 바로 작가들의 존재 가치일 수 있습니다. ✎



글을 쓴 김현진은 대안 공간 (루프(loop))의 큐레이터를 거쳐 현재는 (빔지 스페이스)의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다.